

2012/08/21

프로젝트TF회의자료

□ 여성의 정신건강을 위한 'ENERGY UP' 사업

1) 현황

○ 한국의 여성 자살율은 증가 추세로, 인구10만명당 8.6명, 2004년 19.6명, 2007년 18.1명, 2007년 19.7명으로 증가추세. 여성자살률은 OECD 중 1위임. 독일·덴마크·오스트리아 등 OECD 대다수 국가는 1995년부터 2009년까지 15년간 자살률이 30% 이상 크게 떨어졌으나, 한국은 오히려 같은 기간 자살률이 153% 증가.

○ 여성의 사망원인 중 자살이 차지하는 순위가 1997년에는 9위였으나, 2004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5위를 기록하고 있음

○ 미국·영국·독일 등 대부분 국가는 여성 자살자가 남성의 1/3~1/4에 그친 데 반해 한국은 여성 자살자가 남성의 절반(50.7%)을 차지. 사승언 정신건강과 의사는 "한국도 1980년대 초반해도 여성 자살자는 남성의 1/3이었다"며 "여성 자살이 급증한 것은 우울증 유병률이 남자의 3배나 되고, 사회 활동이 갑자기 늘면서 경제적인 삶과 자녀 교육 등 스트레스를 한꺼번에 받게 됐기 때문"이라고 말했다. 특히 우울증인 줄 몰라 치료를 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은 것도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
(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2/03/20/2012032000053.html)

○ 생애별로는 여성의 경우 10~20대와 40~50대에 높은 우울 수준을 드러냄. 의존적, 수동적으로 살아온 중년 여성은 빈둥지증후군을 겪으며 가치감 저하, 목적 상실, 자기부정적인 느낌 등으로 깊은 우울감에 시달림. 성인여성의 자살 원인 중 우울감에 관한 대응이 필요

2) 관련활동

- 청소년을 위한 스트레스 대처 훈련, 관계 증진 및 자기표현활동
- 여성청소년과 의미있는 관계를 맺는 이들을 위한 멘토링 교육 진행
- 가정외에서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활동 제공 및 또래지지집단의 활동 지원

□ 가출청소년의 '飛行'지원

1) 현황

- 가출 청소년 신고 건수 2010년 28,124명, 그러나 여성가족부 유해환경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이탈 청소년은 연간 20만명, 반면 2011년 기준 가출 청소년 보호시설 현황은 총 83개소(정원 851명)에 불과
- 가출 청소년들은 경제력이 없는 상황에서 가출팸을 형성하거나 성매매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음 (한국여성인권진흥원, 가출청소년 성매매 유입과정 연구)
- 청소년들의 가출 예방과 더불어 가출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아지트를 제공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출과 성매매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

2) 관련활동

-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아지트 지원사업
- '아동 성매매 근절을 위한 캠페인' 진행- 인터넷 정화프로그램 실시 등
- 인터넷 음란물 및 성매매 정보로부터 청소년보호
-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당사자 아웃리치 상담 활동 지원
- 방과 후 학교청소년들의 인성과 건강을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청소년 쉼 공간과 놀이 공간 마련
- 가출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일자리 제공과 경제권 확보 (착한기업과 MOU체결)

□ 페미니스트영화감독지원사업

1) 현황

- 대중문화의 영향력 확장으로 여성 이슈를 사회적으로 공감하는 기제로서 '문화 활동'에 대한 관심 증대. 실제로 호주제 폐지, 동성애 등 인권 이슈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많은 영향을 발휘하고 있음
- 2009년 문화예술 산업종사자 여성은 216,106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42.2%. 여성비율이 높은 산업은 만화(57.2%), 캐릭터(48.8%), 영화(48.4%), 출판(44.8%), 음악(43.8%)
- 문화체육관광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결과(2009년도)에 따르면 문학 미술 대중예술 등 10개 분야 2천 명의 소득조사에서 전체의 37.4%가 문화

예술 활동으로는 수입이 한 푼도 없다고 응답. 2006년 조사 때 26.6%보다 더 늘어남

○ 특히 여성들은 관련 분야의 네트워크 부족으로,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받고 있음. 또한 결혼한 후에는 더더욱 그 조건이 열악한 상황임

○ 문화예술활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지원함으로써 진정한 성평등사회를 위한 문화적 토대를 만드는 한편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도록 함

2) 관련활동

○ 대중문화의 영향력 확장으로 여성 이슈를 사회적으로 공감하는 기체로서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여성 혹은 출산 등으로 관련 활동을 중단한 이들에게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

□ '또 다른 가족의 희망이야기' 지원사업

1) 현황

○ 2010년 여성가구주 가구는 25.9%로, 5년 전에 비해 4% 상승. 2010년 1인 가구주의 수는 총 41,42,165가구로 이중 여성가구주의 비율은 53.5%임. 연령별로 보면 25세 미만 여성가구주의 비율과 60세 이상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(한국여성정책연구원, [2011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])

○ 한국의 1인 가구 증가세는 가장 빠른 수준. 1990년 102만 가구였으나 2011년 436만 가구로 확대. 네 가구당 한 가구 꼴. 1인 가구는 전체 인구는 8.8%. 1인 가구의 소비트렌드는 소형, 효율, 안전, 나로 나타나고 있음... 신체적, 정신적 질병에 취약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예방차원의 관리 대책이 필요함. 돌봄, 노인부양 등 가족이 담당해왔던 역할을 지역커뮤니티가 분담해야 되는 상황임(삼성경제연구소, SERI 경영노트, 159호, 부상하는 1인 소비 트렌드)

○ 1인가구, 한부모 가구 등 가족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주거, 교육, 문화생활 등의 차별 없는 권리 보장이 필요.

2) 관련활동

- 방과후 나홀로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
-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성인력 양성사업
- 여성가장을 위한 경제자립지원사업

□ 30%의 행복한 진실...

1) 현황

○ 2011년 세계경제포럼(WEF)의 '성격차지수'는 135개국 중 107위(경제참가율, 임금, 입법 및 고위관리직 비율 등으로 평가)이며, UN 여성권한지수 109개국 중 61위, 남녀평등지수 135개국 중 107위 (2009년)

2) 관련활동

- 여성과 관련해 제기되는 이슈들을 뒤집어보는 간담회 개최: 군가산점제, 할당제, 낙태 등
- 한국여성재단이 선정한 여성친화기업 시상 프로그램 마련
- 한국여성재단이 선정한 올해의 여성이슈 발표